



한국고대사문제연구소 오순제 소장

# 불교사회복지 이론체계 미비

### 복지관 운영·법인 확산따른 학문적 뒷받침 절실

최근 고계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설립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등 사회복지법인 수와 시설 수가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다. 또한 복지들의 전반적인 복지이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자원봉사과 각종 후원회가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불교사회복지 이론의 확립은 아직 요원한 상태로서 그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지난달 총격을 단져준 '소적새마을' 사건도 불교사회복지 이론의 미비와 불교복지사업의 비체계성에 기인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이와관련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김용택교수는 "아직까지 불교사회복지학에 대한 개념정립이 명확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인문과학에 속하는 불교학의 사상적 측면과 사회과학에 속하는 사회복지학의 방법론을 상호보완한 개



◇ 불교사회복지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이론정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9일 조계사에서 열린 불교복지 세미나 장면.

## 운영의 전문화 위해 필수...저서·논문 부족

념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불교학의 현대화를 통한 불교사회복지 이론의 정립은 현대 사회복지학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이라며 "불교복지 이론의 확립을 통해 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 다양한 자원 확보, 불교

복지의 전문화에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신성중교수는 "불교사회복지학을 불교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경우와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탐구하는 입장과의 상이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불교사회복지학은 그 학문의 성격과 학문영역의

독자성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불교사회복지의 학문적 체계화를 위한 연구"로 국내 최초로 유일한 불교사회복지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해숙씨는 "이제 불교사회복지는 종교적 자선사업의 수준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학문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저서로는 일본京都불교대에서 박사학위(불교사회복지전공)를 취득한 송산섭(중앙승가대 학장)의 <불교복지 1: 사상과 사례>

<불교복지 2: 재난구제사>(법수출판사 권) 외에 일본 立正대 모리나가 마쓰노부(森永松信)교수의 <불교사회복지학> 등 번역서 5권이 고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대학 석사학위는 문은 삼일강간호의 현황과 과제(김영희) △불교사회복지의 이론적 체계에 관한 연구(이동근) △불교사회복지의 이론적 배경: 프로그래밍 개발과 관련하여(김용소) △불교사회복지론에 관한 기초적 연구(이해숙) △조계시대 불교복지사업에 관한 연구(김강영) 등 5편과 지난 91년 개설한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사회복지학전공 석사논문 10여편이 전부.

김재경 기자

384년 중국 동진으로부터 백제에 처음 불교를 전한 인도승 마라난타(摩羅難陀)가 전한 불교는 중국식 불교가 아닌 순수한 인도 불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고대사문제연구소 오순제소장은 최근 펴낸 <한성백제사>(집문당)에 게재된 '백제불교에 대한 재고찰: 첫 발생지를 중심으로'란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마라난타는 백제왕이 친히 나가 맞을 정도의 비중있는 인물이었음에도 중국측 사서에는 전혀

"백제 불교는 인도서 전래" 나타나고 있어, 그가 장기간 체류하면서 활동한 인물이 아니라 중국을 경유해 곧바로 백제로 왔을 것이란 추정이다.

오소장은 <삼국사기>에 침류왕 2년에 한산(漢山)에 절을 짓고 승려 10인을 두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라난타가 온 지 반년도 안된 짧은 기간으로 그 사이에 창사(創寺), 도승(度僧) 등이 이뤄졌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라며 "성왕 4년(526)에 중국에서 수입된 음악의 결함을 보충기 위해 인도에 파견된 경의의 인도구법여행 완수는 백제 불교가 인도에서 직수입된 불교라는 증거와 자신의 나라가 불국토란 자신감을 갖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성품은 청정한데 왜 망상 있지요

문 육조승의 계승에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랴'는 구절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성품은 본래부터 티끌조차 불을 지르기가 없는데 어찌 번뇌망상이 끊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김철수·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답 사람이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않다면 그게 목석이지 사람이겠습니까. 밖으로 보고 듣는게 많고 안으로도 이런 저런 상념이 떠오르게 마련인데 그게 바로 공부의 훌륭한 재료들입니다.

그런 훌륭한 재료들을 두고 이런 망상이나 하지 말아야지, 이런 번뇌이니 버려야지 한다면 무엇으로 공부해 나가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에 성불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억겁을 두고 입력되고 그렇게 잠재해 있는 습들이 쉽게 풀려 나오는 것이니 번뇌망상이나 규정짓기 이전에 발전의 요인이라고 보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번뇌가 곧 보리더라는 말씀의 뜻을 참구해 보세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비구니가 뭘 알아서?'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만 나중에 생각을 비웠습니다.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는 약사유리 광 공덕경을 읽다가였습니다. 경의 말씀 중에 '날 밝은 날은 눈 뜬 자가 눈 먼 자의 안내자가 되고 어두운 밤에는 눈 먼 자가 도리어 눈 뜬 자의 길 안내자가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듣고 싶습니다.

<최희권·경기도 일산시 양촌마을>

답 저도 그런 말 가끔씩 듣고 있습니다. 비구니가 어떤 얼마나 아느냐? 비구니는 성불할 수 없다고요? 그게 대놓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뭐 대답을 안해도 그만입니다만 마음공부를 한다는 분에게 답을 안 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모습은 다를지언정 마음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 마음에도 남·여의 성별이 있습니까?' 라고요.

생명의 근본이 다르지 않고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생활인들 다르겠습니까? 초기불교에서 비구니에게 비구보다 더 많은 계율을 요구했고 가끔씩적인 받아들이지

지 상 상 담

길 묻는 이에게

독자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담은 조계종 한양암선원 대법스님에게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재정리해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 문기보다 참구해 아는게 옳은지

문 "길을 묻는 이에게"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스님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어서 답을 구하기 보다는 스스로 의정을 들고 답을 구할 때까지 참구해 들어가는 게 바른 공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동수·경기 양평군 용문면>

답 처사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방법에 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니 묻고 대답하는 것에 과매치 마시기 바랍니다.

옛 말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님께 묻는 것은 공부 길을 묻는 것이지요. 마냥 문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만 스님네들은 시간을 여의고 몰락 말간체로 공부하는 분들이니 길 가는 요령을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을 물어 알고 나서 '이 길로 가면 된다'고 믿고 가는 것과 우왕좌왕, 두리번 두리번 길을 가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묻는데 있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알게 된대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 비구니스님 상담에 의구심이...

문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본란을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우연히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분이 비구니스님인

않으려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의 상황이 여자들에게 매우 나빠서 지독한 차별대우가 있었고 여자들은 그걸 참아야 했으니 마음에 많은 한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공부하기 어렵다 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모습이 다르다고 마음까지도 다르다면 어찌 실유불성(悉有佛性), 일체 민유는 다같은 불성의 나뭇이라 했겠습니까?

만약 모습이 다르니 아는 것도 다르고 깨침에도 다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런 생각이 깨침의 장애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공부는 바로 그러한 형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몸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서 말입니다.

제법무아(諸法無我), 도무지 '나'라고 이름할 게 없는데 남·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간의 대의적인 문제로 분다체도 산하대지는 만물을 길러내는 어머니 자리이고, 두두물물 생명있는 것들이 다 어머니 아버지의 정혈을 빌어 태어납니다. 일체평등을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남·여에 차별을 두어 줄을 세우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설혹 비구니가 어찌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라도 내 스승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마음공부 하시는 분이라면 모두가 내 스승이니 비구니가 뭘 아느냐고 배척할 수 없는 도리가 있음을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직지사 제하당

世尊當入雲山中  
(세존당입산중)  
一坐不知經六年  
(일좌부지경육년)  
因見明星云悟道  
(인견명성운오도)  
言詮消息遍三千  
(언詮소식편삼천)  
(연전소사편삼천)

鬼窟蒼苔淨裡裏  
(외의락정리리)  
獨步乾坤誰伴象  
(독보건곤수반상)  
若也山中逢子期  
(약야산중봉지기)  
豈將黃葉下山下  
(기장황엽하산하)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經보다 禪수행의 중요성 강조

부처님께서 설산에 계실 때 한번 앉아 6년이 흘러감을 알지 못했네  
밝은 별을 보고 도(道)를 깨달았으니  
그 말씀 그 소식 삼천세계에 가득하여라

높고 넓은 본연의 세계 하늘과 땅 어디다 비거리 산중에서 그대를 만나고자 한다면 어찌 불경만 가지고 산아래로 내려가리

해설 직지사 제하당은 본래 대웅전 정방 우측에 위치해 있었다. 79년 5월에 설립전 동쪽으로 이전 개축

직지사 제하당의 주련.

탄한 고성영봉의 한 구절이다. 뒤의 4구는 누구의 시편인지 알 수 없으나 선수행을 하는 수행자에게 철저한 수행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앞의 두 구절이 본래 무변의 진실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면 뒤의 두 구절은 자성을 깨우치려거든 경전을 통한 알음알이만 가지고 하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끝줄의 황영(黃榮)은 경전을 뜻하는 말이다.

(안동 경인중 교사)

## 불교 전통의식 교육원 제 14기 학인 모집요강

불교전통의식으로는 불교음악으로서의 범패와 승무(바라춤, 착복무)를 들 수 있다. 범패란 전통불교음악을 지칭한 말로서 그 기원은 인도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범패음악의 현실은 어떠한가? 오늘날의 한국 寺院은 영산회상의 환희심을 잃은지 오래이며, 몇몇 특수사찰과 교육원에서 그 명맥만이 전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梵唄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중요성이 실추되어 있는 바 불교계의 발전과 조상이 남기신 훌륭한 유산을 우리 후손에게 보다 잘 전승해 주었음에 그 종교적 문화적 가치성은 더욱 크다고 볼 것이다. 이에 본 교육원에서는 사라져 가는 범패의 가치성을 보다 높이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제14기 전통의식 교육생을 모집하게 되었는데바 전통의식에 관심이 있으신 스님 및 신도님께서는 방문하시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전통의식교육원 원장 合掌

교육과정

- 기초과정: 사찰(사중)생활에 필요한 기본의식 및 예불·불공
- 기본과정: 천도의식 49재의식 범패·범음 등 제반의식
- 요잡과정: 바라춤, 착복(나비춤) 태정치는 법 등
- 강사: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이수자 임명수 원장 직강
- 교육기간: 기초과정3개월 기본과정 6개월 요잡과라 3개월
- 기초과정-오후5시-6시30분 기본반-오후7시-8시30분
- 교육시간: 주4회(월~금요일)
- 접수일자: 1995년 8월21일~9월16일 ※ (AM 10:00~20:00) 상담자 대기
- 개강: 9월 18일

자 격: 종단에 구애없이 전통불교의식에 관심이 있으시고 배우고자 하시는 스님 및 사찰관리자, 신도 모두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입학원서(본교육원 발행) 사진 3매(반명함)

문의전화: (02)967-7093

약도

130-014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청량리 전화국 건너편 3층)

☎ 967-7093

상담자 항시 대기

불교전통의식교육원